

국내 보험산업과 COVID-19 이후 보험산업의 예측

보자보자 어디보자 보험 두고보자

보험과 리스크, 그리고 COVID-19

보험 업계의 특성은 보험 업계가 리스크와 직접 관련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보험 업계의 주요 수익 창출원이 되는 보험 상품은 리스크의 평가를 통해 보장 범위와 금액이 결정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ALM(Asset-Liability Management)와 같은 기법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당국과 회사 내부에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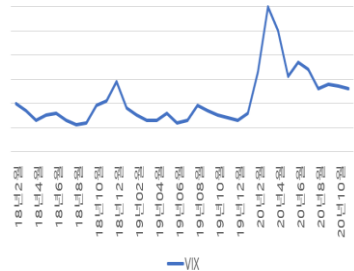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기존 보험업계에서도 리스크의 파악과 대응이 중요한 이유였으나 COVID-19 상황 이후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고 보험사의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회계기준의 변경은 COVID-19 상황과 맞물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각 나라 별로 COVID-19에 대응하는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회사 자체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한다.

 **POSTRADE**

보험산업의 연구

2020.12.01



Team 3

팀장

이원영

seanlee1234@naver.com

팀원

김석영

tjrdud1747@gmail.com

김민서

kchloe1279@naver.com



Contents

개요

보험산업의 개념

보험산업의 구성 및 동향

COVID-19이 미치는 영향

IFRS

대응방안 분석

향후 보험산업의 방향성



INTRO

1. 보험산업의 개요

1) 보험산업이란

보험은 보험료와 적립금 산정이 대수(大數)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되므로 요율 산정에 있어 수리적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통해 '소득 창출'과 '지출 관리'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대형 기관투자자로서도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보험산업은 국가 감독기구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2) 보험산업의 특성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경기상승과 하강국면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경기상승국면에서 수입보험료는 증가, 해약환급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기하강 국면에서 수입보험료는 감소, 해약환급금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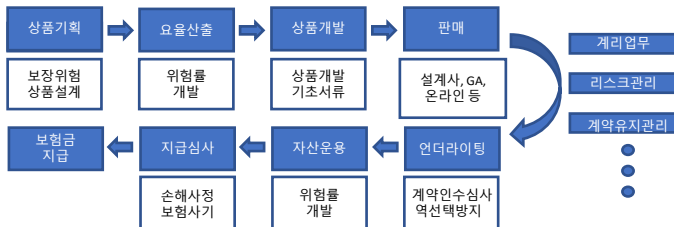
보험산업은 계절에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건강상태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태 외에도 계절변화와 같은 외부환경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사망률도 현재까지는 동절기의 춥고 건조한 날씨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의 특성과 한파의 영향 등으로 전반적 여름보다 겨울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저금리 경제 환경으로 인해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손익확보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및 고가치 핵심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3) 보험 주요 업무구성 및 기능



<표 1> 보험 주요 업무구성 및 기능



자료: 보험연구원,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각각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품기획은 먼저 상품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회사가 앞으로 판매할 상품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어떤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위험들 중에 서 어떤 것이 보험화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요율산출과 상품개발은 기초기에서 결정된 상품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것이다. 상품에서 결정된 위험에 대한 발생 확률을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보험료, 영업보험료를 계산하고, 관련 기초서류들을 작성하여 필요 시 허가 업무를 하하는 것이. 이들은 주로 동시에 추진된다.

판매는 개발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보장위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판매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하여 설계사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다녀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은행창구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홈쇼핑, 온라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언더라이팅은 보험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연성에 기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건강상태를 속이고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 다수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자산운용은 향후에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의 보장기간은 장기이며 보험료를 산출에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약속된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지급심사는 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보험산업의 주요 동향

가계의 부채부담이 2014년 이후 확대되면서 6년간 수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신해지율)이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저축성, 변액 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의 해약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경기하강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보험사는 해약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COVID-19의 확산으로 어려울것으로 예상했던 2020년 올해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보험산업의 위기극복 노력 등으로 오히려 이례적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보험산업은 사업재조정(Rebuilding)과 경쟁과협력(Competition)이라는 2가지의 과제를 풀어야만 할 것이다.



2-1. COVID-19로 인한 거시 변수 변동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COVID-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거시 경제 변수 또한 큰 변동을 겪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 내생적 요인에 의한 금융위기가 수요측 측면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경제 외생적 변수인 전염병이 원인이 된 COVID-19 사태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요측 뿐 아니라 지역 봉쇄 등으로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고 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공급측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동시 충격은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보험산업의 영업 측면을 본다면 COVID-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체결하는 방식은 크게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이 있는데 COVID-19의 영향으로 사람 간의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대면 방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면 방식은 판매하는 상품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 비중이 대면 방식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종합했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이 COVID-19 사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OVID-19의 확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도 보험업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OVID-19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공격적인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저금리 기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 규모 또한 커지게 되고, 보험회사는 규제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을 주요 투자자산으로 하는 보험회사 특성상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사가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향후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추가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추가지수 급변동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회사의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료: 삼성전자 반기보고서(20.08.14),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2-2.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및 COVID-19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상장예정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에 IFRS를 의무적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IFRS의무적용 이후 수익, 리스, 금융상품, 보험계약 등에 적용되는 기준서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2018년 기존 금융상품기준서를 대체할 IFRS9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회계처리 및 해석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2023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서인 IFRS17의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재무제표 상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IFRS9 및 IFRS17의 주요 변동사항을 짚어보고 그것이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COVID-19가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1) 신 금융상품 기준서 : IFRS 9

IAS 39는 회계기준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석, 이해 및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4년 7월 IASB를 대체하는 IFRS9을 확정 발표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IFRS9은 크게 분류 및 측정 분야, 손상(Impairment) 분야 및 위험회피회계 분야에서 기존 금융자산기준서와 차이를 보인다. 측정 및 분류 분야에서는 기존의 금융자산 분류 기준을 명확화하고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인식 지정 요건을 단순화 하였으며 후속측정시 금융자산에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중심의 금융자산 분류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그 적용요건이 완화된 것 또한 IFRS9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IAS39에서 규정 중심적이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IFRS9에서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 중심적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손상 분야이다. IFRS9 도입으로 인하여 공정가치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채무상품 및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손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손상 자산의 범위가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IAS39하에서는 매 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유무를 평가하여 손상의 증후가 있는 경우, 손상 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미래 사건의 결과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았다. (발생손실모형) 하지만, IFRS9에서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증가한 경우,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 전망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예상손실모형)

이러한 IFRS9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번째는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이 변동되면서 보험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VPL)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2> 주요 증권사 당기손익금융자산 분류 변동 현황 (18.1.1 기준)

| 구분 | 회사명 | 당기손익금융자산(억원) | | | 비중변동 (%) |
|-----|------|--------------|--------|--------|----------|
| | | 개정전 | 개정후 | 증가액 | |
| 보험사 | KB손보 | 8,544 | 59,481 | 50,937 | 20.5 |
| | 신한생보 | 4,894 | 45,116 | 40,222 | 15.9 |
| | 롯데손보 | 436 | 20,330 | 19,894 | 31.8 |
| | KB생보 | 3,373 | 18,363 | 14,990 | 18.9 |

자료: 금융감독원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18.06.29),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IFRS9의 도입에 따라, 당기손익금융자산(FVPL)의 비중이 보험사별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금융자산 중 FVPL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손익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과,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선인 이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때 IFRS9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변동이 커짐을 유추할 수 있다.

두번째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도입함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추가적인 손실을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IFRS9에서는 '미래 전망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거시 경제 변수 포함)를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손실금액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미래예측정보에 COVID-19의 확산과 관련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추가되어 손실충당금 설정 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신 보험회계기준서 : IFRS17

기존에 적용되었던 보험회계 IFRS4는 개별 국가의 법적, 회계적 요구사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각 국가별로 보험계약에 대하여 국가간 독자적인 회계 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IFRS4 기준 하에서는 국가간, 기업간, 상품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각 나라의 고유한 보험회계를 인정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FRS17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무제표를 더 유용하게 만들고 국가간 보험 회계 관행을 일관되게 만들고자 하였다.

IFRS4와 비교되는 IFRS17의 특징은 크게 보험수의 인식 방법의 변화 및 보험 부채 평가방법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보험 수익 인식 방법의 변화의 경우 기존 IFRS4 하에서는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 즉 현금주의 방식에 의해 보험수익이 인식되었다. 즉,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기로 약속된 시점에 수취하기로 한 보험료 전부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 IFRS17에서는 보험료가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발생하는 시점, 즉 보험금 등이 발생하여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에 대응하는 수익이 인식되는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익이 인식된다. 동일한 보험수익 하에서도 IFRS4 하에서와 IFRS 17 하에서의 수익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더하여,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신규 보험상품 가입 위축 및 해지율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험업계의 수익 크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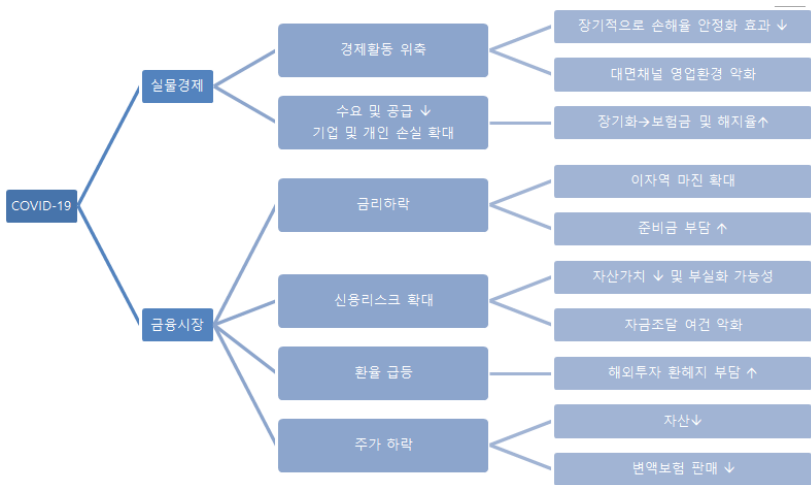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이 IFRS4 하의 원가법에서 공정가치 평가법으로 바뀐 것은 IFRS17 도입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것이다.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는 원가법을 기본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판매한 시점에 사용한 최초 추정치와 가정을 변경 없이 적용하여 보험부채가 계산된다. 반면, IFRS17이 도입될 경우 부채평가 기준이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 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보험부채를 시가로 표시하게 되면 오래전 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도 현 시점의 이자율을 반영하여 보험부채가 계상되므로 시장의 금리에 따라 보험부채의 규모 또한 크게 변동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특히 COVID-19 사태 이후 각 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시 평가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COVID-19 사태 및 각국의 금융정책에 의해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의 대응방안 분석

COVID-19의 확산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실물 경제에서는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손해율의 안정화 효과가 적고, 대면채널 영업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고 수요 및 공급의 급감과 이에 따른 기업 및 개인 손실이 확대되며 보험금 및 해지율의 증가가 예상되며 보험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도 금리 하락, 신용리스크 확대,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자역 마진 확대, 준비금 부담 증가, 자산가치 하락 및 부실화 가능성, 자금조달 여건 악화, 해외투자 환해지 부담 증가 자산 감소와 변액보험 판매 감소로 지급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COVID-19으로 인해 보험부문이 입을 피해에 대하여 금융당국은 보험부문이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 보험연구원,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 국가 | 조치 |
|----------------------|---|
|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VID-19로 인하여 연차보고가 늦어진 상장보험회사 및 기타 상장회사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원격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IT분야에 적용되는 '네트워크분리규칙' 적용 면제를 확대함 |
| 중국 CBIR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통제 관련 법안을 최소 8건 이상 발표 보험회사에 대고객 원격소통창구 마련과 원활한 활동을 유지할 것을 당부 보험회사에 감염병 예방 및 보험금 청구서비스, 제품혁신 및 소비자보호를 개선할 것을 요구 보험회사의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자제를 요청 |
| 일본 FSA 보험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의 핵심 언더라이팅 및 상품판매 조건을 완화하지 않음 COVID-19 관련 질의에 관한 보험소비자 핫라인을 구축함 보험회사는 직원들에게 휴가 제공, 파트타임 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라고 함 |
| 싱가포르 MS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건강보험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신중한 위험평가를 유지하되, 바이러스 감염 고객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노력을 촉구 |
| 홍콩 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위험 감소를 위한 보험판매조치를 3월 31일자로 완화함 보험료 유예기간을 180일로 연장하고,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병원규제를 완화하며 입원비 지급청구절차를 단순·신속화하고 기타할인혜택 제공을 보험회사에서 장려함 |
| 유럽 EIOP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20일, 감독보고·공개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 Solvency II 영향평가 검토 기한을 2020년 6월 1일로 연장 현재 시장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필수요소로 정보요청을 제한 2019년 연차보고와 관련하여 각국 감독기관에 유연한 적용을 촉구 - 구체적인 접근법 조율 예정 EIOPA는 감독보고와 관련하여 SFCR 제출은 최대 8주 연장을 허용하되 가장 중요한 정보항목에 대해서는 2주의 유예기간을 허용 - SFCR에 COVID-19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

자료: 보험연구원, 한국외대 증권투자동아리 POSTRADE



보험업계의 대응방안 분석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판매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험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통화감독청은 COVID-19 입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건강보험상품 운영의 독려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보험감독청에서 대면채널의 모집절차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우편물 청약철회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 등의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중단 손해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제한적인 B2B 거래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 제고와 함께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도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중국의 은행보험감독청은 보험회사에 전염병 예방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품 혁신과 소비자보호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고, 태국의 보험감독청은 COVID-19 감염자에 대해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4월까지 면제하고 추가 60일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및 약관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하였다.



보험업계의 대응방안 분석

금융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는 COVID-19에 따른 보험회사 자체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금리의 하락과 자산가격의 하락을 대비하고 이러한 위험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COVID-19로 인하여 연차보고가 늦어진 상장보험회사 및 기타 상장회사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격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IT분야에 적용되는 '네트워크분리규칙'을 적용하여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FSA에서는 보험회사의 핵심 언더라이팅 및 상품판매 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COVID-19 관련 질의에 관한 보험소비자 핫라인을 구축하고, 보험회사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하거나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권고하고 있다.



향후 보험산업의 방향성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고, IFRS17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국내는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이 부족하고 고수익의 자산도 찾기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 확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발의된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보험업계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험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수입보험료 성장 중심의 경영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과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에는 인슈어테크의 바람도 불어오고 있다. 인슈어테크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기술을 보험 산업에 접목한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보험과 접목하려는 시도도 같은 맥락이다. 일례로 오렌지라이프는 지난달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인지기반(Cognitive) RPA까지 확장했다.



보험사들은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해 건강증진형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의 건강습관에 관한 정보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서 수집해 보험료할인, 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험이다. 일례로 AIA생명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를 수집해 바이탈리티 나이에 따라 설정된 운동량 목표치를 달성하면 SKT 통신요금, 커피쿠폰, 온라인 상품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슈어테크 분야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조만간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와 삼성화재의 합작법인도 올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풀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하는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헬스케어 기기를 접목한 보험상품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